

# 한국어 관용어구와 논항구조\*

홍 기 선

## 1.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관용어구(idiomatic expressions)의 의미를 논항구조 이론(Argument Structure Theory) 틀 내에서 살펴보려는 것이다. 관용어구에 대한 연구는 전통문법에서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1980년대 말부터 다양한 통사이론들이 논항구조를 주요 연구과제로 삼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을 받게 되었다. 관용어구의 의미가 논항구조 이론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많은 논항구조 이론들은 의미역(thematic roles) 간의 위계(hierarchy)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이론을 전개해 왔는데 이중 몇몇 연구들(Marantz 1984, Kiparsky 1987, Bresnan and Kanerva 1989, Bresnan 근간)은 이런 위계가 존재한다는 독립적인 근거로 영어 관용어구의 조어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우리말의 관용어구를 분석해 본 결과 그 조어법이 의미역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의 제안처럼 세분화된(fine-grained) 의미역 위계를 지지하지는 않음을 주장하려 한다.

우선 2장에서는 홍기선(1992)에 기초하여 논항구조 이론의 기본 틀과 영어의 관용어구가 이런 이론에 시사하는 바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관용어사전(1996)에 수록된 우리말 관용어구의 논항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4장에서는 논항구조 이론 내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제안한다.

## 2. 논항구조 이론과 영어 관용어구

한 문장의 의미와 통사구조 사이의 관계는 오랫동안 언어학자들의 관심거리가 되어 왔는데, 많은 통사이론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문장 내 여러 요소들 중에서 동사의 의미가 가장 중요하며 의미가 주어지면 그 동사의 통사적인 자질들을 자동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가설을 받아들이고 있다. 통사적인 자

---

\* 이 연구는 1998년도 어학연구소 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을 도와준 한철홍 군과 담화인지 언어학회 월례 세미나에서 도움말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질에는 어떤 논항을 주어로 택하는가, 어떤 격을 취하는 논항을 필요로 하는가 등이 속한다. Fillmore (1968)의 격문법이나 Lakoff (1968)의 생성의미론은 그런 가설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연구이며, Chomsky (1981)의 지배결속이론은 투사 원리(Projection Principle)란 형태로 그 가설을 수용하고 있다. 1980년대 초 Hale (1983)과 Marantz (1984)로부터 이에 대한 연구가 여러 통사이론에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Bresnan and Kanerva (1989), Jackendoff (1990), Grimshaw (1990), Dowty (1991), Van Valin (1992) 등에서 독자적인 이론들이 제시되었다. 최근에는 Pustejovsky (1995), Goldberg (1995), Bresnan(근간) 등에서 보다 정교한 이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이론에서는 동사가 가지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표상(representation)하기 위하여 의미구조(Semantic Structure), 논항구조(Argument Structure), 기능구조(Functional Structure), 성분구조(Constituent Structure) 등 여러 개의 독립적인 구조들을 가정한다. 물론 모든 이론이 이런 구조들을 똑같은 정도와 형태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Jackendoff (1990)는 논항구조를 독립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의미구조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며, 어휘기능문법(Lexical Functional Grammar)에서는 기능구조가 가장 핵심적인 구조이나 다른 이론에서는 성분구조가 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논항구조에 어떤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론마다 차이가 있다(Grimshaw 1990, 2).

이들 구조는 각기 다른 종류의 정보를 표현하지만 각 구조마다 표상되는 요소들 간의 상대적인 위계(hierarchy)를 가정함으로써 서로 밀접하고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진다. 즉, 의미구조에 표현되는 의미적 참여자들(semantic participants)은 특정한 위계에 따라 순서지워지고 그 순서에 따라 논항구조 상의 논항 간에 탁월성(prominence)이 결정된다. 한편 기능구조에 표상되는 문법기능 간에도 상대적인 위계가 있어 의미에 의해 순서 지워진 논항과 차례대로 연결되게 된다. 이런 문법기능의 결정 이외에도 의미적 참여자 간의 위계는 통제(control), 수동태(passive), 결속현상(binding)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Jackendoff 1990, Hellan 1988 등). 결국 의미적인 위계가 논항구조라는 중간구조를 통해 통사구조를 결정하는 것인데, 의미와 통사의 연결고리인 논항구조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연구들의 초점이 주어져 있으므로 이들 이론을 논항구조 이론, 또는 연결 이론(Linking Theory)이라 통칭한다.

따라서 논항구조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구조이며 그 중에서도 의미적 참여자들 간의 위계라고 할 수 있다. 의미적 참여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 Gruber (1976)와 Fillmore (1968) 이후 대체로 의미역(thematic roles)이 그 대답이라고 믿어져 왔다. 그리고 의미역은 과연 개별적인 역할들로 나눌 수 있는가, 나눌 수 있다면 정확히 몇 개로 나누어지는가 하는 질문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실상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저에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의미역은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의 조합

을 보다 간편하게 부르기 위한 이름일 뿐이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예를 들어 Jackendoff (1990)는 GO, STAY, BE, ORIENT, CAUSE 등의 개념들을 기본적인 인식의 범주로 상정하고 우리가 보통 주제(Theme)라고 부르는 것은 GO, STAY, BE나 ORIENT와 같은 개념들을 함수로 보았을 때 그들의 논항을 가리키는 이름이며, 행위자(Agent)는 CAUSE 함수의 첫째 논항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본다.

얼마나 추상적이건 간에 의미역이라 불릴 수 있는 개념이 논항구조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에는 많은 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이 어떤 위계를 이루는가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인다. Bresnan and Kanerva (1989)는 의미역들이 (1)과 같은 위계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본고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으나 어떤 동사가 행위자와 수동자(Patient), 두 개의 의미역을 가지면 위계에서 상위인 행위자가 주어, 하위인 수동자가 목적어가 되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서 주제는 위의 Jackendoff의 정의대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거나 이동하는 물체를 주로 가리키며 수동자는 행위자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입는 물체를 가리킨다.

#### (1) 의미역 위계(Thematic Hierarchy)

행위자(Agent) < 수혜자(Beneficiary) < 수령자(Recipient)/경험자(Experiencer)  
 < 도구(Instrument) < 수동자(Patient)/주제(Theme) < 장소(Location)/  
 출발점(Source) / 도달점(Goal)<sup>2</sup>

Jackendoff (1990, 258)는 의미역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움직임이나 장소와 관련되는 역할을 표시하는 주제층위(Thematic Tier)와 누가 행동을 하고 누가 그 행동에 의해 영향을 입는가와 관련되는 역할을 표시하는 행동층위(Action Tier)이다. 예를 들어 'The car hit the tree'라는 문장을 움직임의 측면에서 보면 차가 주제이고 나무가 도달점이다. 그러나 행동이란 관점에서 보면 차는 행동주(Actor)이고 나무는 수동자이다. 이 두 층위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이지만 통사구조와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두 층위에 속하는 의미역들 간의 순서는 (2)와 같은 하나의 위계로 표현된다. 즉, 행동층위의 의미역들이 우선하고 주제층위의 의미역들은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이다.

#### (2) 행동주 < 수동자/수혜자 < 주제 < 장소/출발점/도달점

<sup>1</sup> 다른 견해를 취하는 학자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 Pustejovsky (1995, 99)는 단어의 고유한 의미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하므로 그의 의미특성 구조(Qualia Structure)에 의미역이란 개념은 나타나지 않고 또 단순한 대응관계도 찾기 힘들다.

<sup>2</sup> Bresnan and Kanerva (1989)는 출발점과 도달점을 의미역 위계에 독립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제시된 예들을 볼 때 그것들이 장소에 포함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다른 이론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이들을 (1)에 포함시켰다.

(1)과 비교할 때 (2)에는 도구역이 없는데 Jackendoff (1990, 259)는 도구역이 전치사구의 형태(예: *with a key*)로 표현될 때에는 비논항이며 주어(예: *The key opened the door*)로 표현될 때에는 무생물(inanimate) 행위자라 주장한다.<sup>3</sup>

Grimshaw (1990, 24~26)는 위의 두 이론과 상당히 다른 주장을 하는데 우선 의미구조를 (3, 4)와 같은 두 개의 독립적인 차원으로 나눈다.

(3) 주제차원(Thematic Dimension)

행위자 < 경험자 < 장소/출발점/도달점 < 수동자

(4) 상적차원(Aspectual Dimension)

행동(Activity) < 결과상태(Result State)

Grimshaw는 두 차원의 정보가 복합적으로 통사구조를 결정한다고 보는데 주제차원의 정보는 주로 전치사의 선택 등에 관여하며 논항 간의 순서는 상적차원의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상적차원은 하나의 사건이 어떤 행동과 그에 따르는 결과상태로 구분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행동에 참여하는 논항이 결과상태에 참여하는 논항보다 우선하고 또 양쪽 모두에 참여하는 논항보다는 행동에만 참여하는 논항이 더 우선한다. 여기에서 한 사건의 행동에 참여하는 논항이란 결국 사동주(Causer)를 뜻하게 되어 이 이론은 논항 간의 순서를 결정하는데 사동주가 가장 우선한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차원을 독립적인 구조로 제시하면서도 Grimshaw는 주제차원의 행위자는 반드시 사동주가 된다고 일반화함으로써 다른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행위자란 개념을 최상의 개념으로 제시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수동자가 주제차원 위계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이다. 상적차원도 미루어 생각해 보면 수동자는 언제나 결과상태에 참여하지만 출발점이나 장소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으므로 Grimshaw의 이론에서는 수동자가 위계에서 최하위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위에서 의미역을 구체적인 역할들로 구분하고 그들 간의 위계를 가정하는 대표적인 세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주장의 공통점은 행위자가 최상위라는 점이며, 이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론 간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주제/수동자와 장소/출발점/도달점 간의 순서이다. Bresnan and Kanerva (1989)에서는 장소/출발점/도달점이 수동자나 주제보다 하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설로 아프리카 언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에서 발견되는 장소격 도치구문(Locative Inversion Construction)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순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두 의미역 간의 경쟁은 영어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enter*와 *receive*는 둘 다 주제와 도달점을 취한다고 모든 이론에서 분석되는데 전자는 주제가 후자는 도달점이 주어가 된다. Jackendoff (1990, 261)는 이에 대한

<sup>3</sup> Jackendoff (1990, 259)는 진정한 도구역으로 보이는 *use*의 목적어와 *serve*의 주어(예: *The key serves to open the door*)는 연구주제로 남겨두고 있다.

하나의 대답으로 *receive*류의 동사의 주어는 소유의 의미를 가지며 *enter*류의 동사가 요구하는 도달점은 단순히 장소의 의미만을 가진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렇다면 그의 이론 틀 내에서 전자는 주제층위에서 도달점이면서 동시에 행동층위에서 수혜자이므로 주제보다 상위에 위치하게 되어 주어로 실현되는 것이 오히려 예측된다. 후자는 행동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는 단순한 도달점으로 주제보다 하위에 놓이게 된다. Bresnan and Kanerva (1989)는 수혜자나 수령자라는 의미역을 독립적으로 설정함으로써 Jackendoff의 설명을 단일한 층위에서 표현하고 있다.

이 위계들은 대체로 다양한 언어의 통사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그 정당성이 입증된다. 그러나 Bresnan and Kanerva (1989)는 자신들이 제시한 (1)의 위계에 대해 독립적인 증거를 제시하는데 Marantz (1984), Kiparsky (1987)등이 주장하였던 영어 관용어구의 조어법이 그것이다. Marantz (1984)는 동사와 목적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관용어구는 많으나 동사와 주어가 합쳐진 관용적 표현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다. Kiparsky (1987, 20)는 문법기능이 아니라 의미역이 관용어구 형성에 관여한다고 주장하면서 영어의 관용어구 조어법이 (5)와 같은 위계를 지지한다고 주장하였다.

(5) 행위자 < 출발점 < 도달점 < 도구 < 주제 < 장소

(6)에 보듯이 영어의 관용어구는 동사와 함께 나오는 명사구의 의미역에 따라 빈도수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Kiparsky 1987, 32). Kiparsky는 (6a, b, c)의 유형은 흔히 발견되나 (6d)는 소수이며 (6e)와 같은 형태들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주제나 장소처럼 위계에서 하위에 속하는 의미역들은 동사와 합쳐져 쉽게 관용어구를 이루나 도달점은 그보다는 어렵고 더 상위의 행위자로 가면 관용어구를 거의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달점과 장소의 차이를 강조하는데 후자는 *there*와 같은 대명사적 부사로 대치되나 전자는 대치될 수 없다는 지적을 한다.

(6) 영어의 관용어구 유형

- a. V + 장소: throw X to the wolves, leave X in the lurch,  
put X to shame, take X to task, run X into the ground,  
bring X to light, take X to the cleaners, put X away,  
carry X out, bring X off, take X on, bring X to,  
head for the hills, hit the spot, hit the sack,  
go against the grain, go to the dogs, go on, take off
- b. V + 주제: give X a hand, give X a wide berth, lend X an ear,  
show X the door, make X a present, kick the bucket,  
ring a bell, give a shit, take a leak, shoot the breeze,  
the penny dropped, the roof caved in, the shit hit the fan

- c. V + 장소 + 주제: bring home the bacon, carry off the palm,  
give oneself away, heap coals of fire on one's head,  
bring coals to Newcastle, let the cat out of the bag,  
the shit hit the fan, till the cows come home
- d. V + 주제 + 도달점: give the devil his due, give oneself airs,  
tell it to the Marines, give it the gun
- e. 다른 형태 (V + 도달점, V + 행위자, V + 도달점+행위자,  
V + 주제 + 도달점 + 행위자)

(6)은 관용어구를 설명하기 위해 주어와 목적어의 양분법이 아니라 세분화된 의미역의 구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위의 예에 많이 수록되지는 않았으나 *the shit hit the fan, till the cows come home* 처럼 주제가 주어가 되는 표현이 많다는 사실이 이를 강하게 뒷받침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Kiparsky가 도달점이라고 부르는 예들은 타 이론에서는 수혜자에 해당되고 그의 장소역은 장소, 출발점, 도달점을 포괄한다는 것이다. 즉, (5)의 위계는 (1)에서 본 Bresnan and Kanerva (1989)의 의미역 위계와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Bresnan and Kanerva (1989)도 이 논거가 (1)을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언어보편적인 논항구조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다.<sup>4</sup> 그러면 3장에서 한국어의 관용어구도 영어와 같이 의미역에 따른 유형화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체계적인 유형화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영어와 같은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논의될 것이다.

### 3. 한국어 관용어구의 분석

각기 다른 용어 사용에서 비롯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제부터는 (1)의 의미역 위계((7a)에 반복)에 기초하여 논의를 진행시키기로 한다. 이 중 도구역은 예도 많지 않을 뿐더러 Jackendoff의 주장대로 행위자로 볼 수도 있고, 수혜자와 수령자/경험자를 구별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으므로 (7b)처럼 함께 묶어 논의하기로 한다.

- (7) a. 행위자 < 수혜자 < 수령자/경험자 < 도구 < 수동자/주체  
< 장소/출발점/도달점

<sup>4</sup> Bresnan and Kanerva (1989)는 이 이외에 동사 일치 형태소(verb agreement markers)를 가진 언어에서 일치 형태소의 문법화가 의미역 위계를 반영한다는 것을 또 다른 논거로 꼽고 있다(Givón 1984).

## b. 행위자 &lt; 수혜자/수령자/경험자 &lt; 수동자/주제 &lt; 장소/출발점/도달점

우선 (6)의 관용어구 분류와 (7b)의 위계를 비교해 보면 Bresnan and Kanerva 나 Kiparsky의 해석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6)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두 집단의 구분-(a) 자유로이 관용어구를 이루는 집단(주제와 장소/출발점/도달점)과 (b) 거의 이루지 못하는 집단(행위자, 수혜자, 수령자/경험자)-이다. Kiparsky는 수혜자/수령자/경험자가 그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고 해석하였으나 그것은 예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들이 관용어구를 이루는 경우가 약간은 발견되나 그것은 주제와 함께 합성된 경우 뿐이다. 독립적으로 동사와 합쳐져 관용어구를 이루는 경우는 Kiparsky의 예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고 그 점에서 두 번째 집단과 그리 다르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6)은 (7b)의 위계에서 양 극단의 세 가지 의미역에 대해서는 올바른 예측을 하지만 (8)에 주어진 인접한 의미역들 간의 위계에 대해서는 사실 말해주는 바가 없다.

- (8) a. 행위자 < 수혜자/수령자/경험자  
 b. 수혜자/수령자/경험자 < 수동자/주제  
 c. 수동자/주제 < 장소/출발점/도달점

이 중에서 (8c)는 특히 중요한데 Grimshaw (1990) 등의 연구는 이와 정반대의 순서를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국어 관용어구의 조어법이 영어처럼 의미역 위계를 지지하는가, 그렇다면 영어 자료에서는 입증되지 않았던 (8)의 세분화된 위계에 대해 어떤 예측을 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자료는 관용어사전(1996, 373~439)에 수록된 약 3,300개의 관용어구를 가감없이 다루었다.

## 3.1. 세 가지 가설의 검증

첫째, 구체적인 의미역을 보기 전에 한국어에서 관용어구 형성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가부터 고려해야 한다. 세 가지 가능한 가설로 합성될 수 있는 명사구의 수, 문법기능, 의미역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명사구의 수에 영향을 받는다면 동사가 하나의 명사구와 합쳐지는 경우는 많은 반면 두 개와 합쳐지는 경우는 적고 세 개가 합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식의 일반화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문법기능의 영향을 받는다면 Marantz의 주장처럼 목적어는 많이 발견되는데 주어는 발견되지 않는 등 문법기능에 따른 비대칭 현상이 예측된다. 셋째, Kiparsky가 주장한 대로 의미역의 영향을 받는다면 수동자/주제, 장소/출발점/도달점이 합성되는 예는 많이 발견되는 반면 행위자가 합성되는 예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첫 번째 가설을 시험하기 위하여 동사와 합성된 명사구의 수를 세어 보았는데 다음의 원칙을 따랐다. 우선 논항만 보지 않고 논항을 포함하여 동사와 관

련된 명사구 전체를 살펴보았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논항으로 제한시킬 경우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첫째, 관형절은 관형절 내의 명사구와 관형절이 수식하는 핵 명사구(head noun)를 모두 포함시켰다. 따라서 (9a)와 같은 예들은 합성된 명사구가 2개인 것으로 보았다. 둘째, 관용어사전에는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표현들도 각기 수록해 놓았는데 유의성의 정도를 비교하기가 어려우므로 여기에서도 그 수를 모두 헤아렸다. 즉, (9b)의 예 등을 본고에서는 독립적인 항목으로 취급하여 각기 수를 세었다. 셋째, 논항이 아니라 명사구라 표현한 것은 논항인지 비논항인지 판단하기 힘들거나 일반적인 논의에서 비논항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우선 (9c)의 통로(Path), 도구(Instrument)는 이론에 따라 논항/비논항의 판단이 다르다. 또한 자주 논의되지 않는 명사구 중에서도 (9d)와 같이 일종의 자격(Status)을 의미하는 예들은 동사의 의미와 관계없다고 보기 힘들다. 본고에서는 이런 명사구들을 모두 포함시켜 수를 헤아렸다.

- (9) a. 핑 농친 때, 가마솥에 든 고기, 물 얻은 고기  
 b. 눈 하나 깜짝하지 않다, 외눈 하나 깜짝 하지 않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르다,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르다  
 c. 다리를 건너다, 칼로 물 베기  
 d. 간판으로 내세우다, 노리개로 삼다, 봉으로 알다

넷째, 위의 예들보다 훨씬 긴 이론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10)의 무핵 관형절(Headless Relative Clause)이다. 이 구문은 한국어 연구에서 아직 이론이 정립 안 된 구문으로 그 핵은 동사가 요구하는 의미적 참여자라고 할 수는 없으나 보다 넓은 화용적 상황에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뒷맛, 소리, 자국” 등을 각 동사가 취하는 명사구의 수에 포함시켰는데 이 경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먹다”의 경우 행위자와 수동자를 취하는 “먹다<sub>a</sub>”와 제3의 화용적인 참여자를 취하는 “먹다<sub>b</sub>”로 구분해야 하며, 또 이런 화용적인 참여자(소리, 맛, 모습, 냄새 등)는 실제로 거의 모든 동사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관용어구의 실제 예가 나오는 경우에만 이런 화용적 참여자를 고려하였다.

- (10) 개살구 먹은 뒷맛, 고추 먹은 소리, 한강에 배 지나간 자국

다섯째, 동사와 명사구가 합성된 경우가 본고의 관심거리이므로 (11)처럼 명사구가 합성되지 않은 예는 자동적으로 제외된다. (11a)처럼 부사가 합성된 경우,<sup>5</sup> (11b)처럼 부정사구나 절과 함께 쓰인 경우, (11c)처럼 동사가 독립적으로

<sup>5</sup> 부사 중에서도 특히 양태(manner)와 빈도(frequency)를 나타내는 부사는 영어에서도 논항의 자리에 자주 나타난다. “well-documented appetite, fast-growing city, a twice-divorced hippie” 등의 동사성 복합어가 그 예이다(Roepfer and Siegel 1978). 동사와 자주



쓰인 경우 등이 포함된다.

- (11) a. 막 가다, 개발새발 그리다, 설설 가다  
 b. 찡고 까불다, 죽었다 깨어나도, 건넛산 보고 꾸짖기  
 c. 걸고 넘어지다, 굴러먹다, 먹혀 들어가다

위의 원칙에 따를 때 약 3,300개 중 (12a)처럼 두 개의 명사구가 합성된 예는 약 107개(2.6% 정도), 세 개가 합성된 예는 (12b)의 2개가 발견이 된다. 또 명사구를 취하지 않는 관용어구는 약 190개(5%)에 이른다. 따라서 대체로 관용어구는 한 개의 명사구를 합성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다.

- (12) a. 간에 기별도 안 가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독 안에 든 쥐,  
 거지 제 쪽박 깨기  
 b. 한강에 배 지나간 자국, 입에 꿀을 바른 말

수와 관련된 다른 가능한 대답으로 영어의 동사성 복합어(verbal compounds) 합성에서 발견되는 불포화 원리(Unsaturation Principle)(Grimshaw 1990)가 여기에도 적용되는지를 보자. 불포화 원리에 따르면 명사구를 하나 취하는 동사는 관용어구에서는 그 명사구가 실현되지 말아야 하며 둘 취하는 동사는 하나만, 셋 취하는 동사는 최대한 둘만 실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사성 복합어를 보면 실제로는 세 개의 명사구를 취하는 동사의 경우 그 중 두 개가 언제나 실현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합성될 수 있는 명사구의 수가 하나로 제한된다고 볼 때에는 이와 예측이 다른데, 명사구를 하나 택하는 동사는 자유로이 그 명사구를 합성할 수 있어야 하고 셋 취하는 동사도 둘 중에서 하나만 합성하여야 한다. 두 예측을 비교해 보기 위해 관용어구에 나오는 동사를 각기 취하는 명사구의 수에 따라 분류하였다. 각 집단에 속하는 동사 중 가나다 순으로 처음 10개씩만 아래에 싣고 전체 분류표는 부록으로 실었다.

- (13) a. 행위자 명사구를 하나 취하는 동사  
 걷다1, 놀다, 다가오다, 다니다, 떠나다a, 말하다a, 얼씬하다, 울다a,  
 웃다, 육갑하다  
 b. 수혜자/수령자/경험자 명사구를 하나 취하는 동사  
 (없음)  
 c. 주제 명사구를 하나 취하는 동사  
 가늘다, 가다1, 가다2, 가렵다, 가볍다, 가빠지다, 가시다, 간들거리다,

---

합성되는 이런 부사들과 도구, 자격(Status), 통로(Path) 등을 의미하는 명사구 등을 논항 이론에서 어떻게 분석해야 할 지는 다음 연구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간지럽다, 갈리다

- (14) a. 행위자가 포함된 두 개의 명사구를 취하는 동사  
가다3a, 가리다a, 가지다, 가하다, 간직하다, 갈다1, 갈다2, 감다1, 감다2, 감추다
- b. 수혜자/수령자/경험자를 포함한 두 개의 명사구를 취하는 동사  
간직하다, 감수하다, 갖추다, 거두다, 겪다, 굶주리다, 깨다1b, 꾸다2, 풀리다, 나누다
- c. 주제를 포함한 두 개의 명사구를 취하는 동사  
가다3b, 가라앉다, 가리다b, 감추어지다, 거두다, 거슬리다, 거처다, 거칠다b, 걸리다b, 깎이다a
- (15) a. 행위자가 포함된 세 개의 명사구를 취하는 동사  
가라다, 감싸다, 결들이다, 구워먹다, 까다b, 깔다b, 끼다3, 내다b, 내딛다b, 내세우다
- b. 행위자가 포함 안 된 세 개의 명사구를 취하는 동사  
짜이다b, 느끼다, 듣다b, 보다b, 생각하다, 알다, 품다

우선 불포화원리에 대한 결과부터 제시하고 위의 동사 분류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세분화된 의미역을 다루는 다음 장에서 하겠다. 첫째, (13)과 같이 하나의 명사구를 취하는 경우 불포화원리의 예측은 어긋난다. 해당되는 명사구를 합성하는 경우가 합성 안 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13a)의 경우 이들 동사로 이루어진 총 28개의 관용어구 중 행위자 명사구가 합성된 경우는 (16)에 주어진 18개이고 명사구와 합성 안되고 부사와 쓰이거나 동사 자체만으로 쓰인 예가 10개였다. (13c)의 경우 (17)과 같이 주제 명사구가 합성된 예는 세어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이 발견된다. (13c)에 주어진 10개의 동사를 조사한 결과 주제를 합성한 예는 31개이고 명사와 합성 안 된 예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 (16) 거북이 걸음, 도깨비 놀음, 먹구름이 다가오다, 바지저고리만 다니다,  
차는 이미 떠나다, 시간이 말해주다, 개미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다,  
손이 울다, 암탉이 울다, 주먹이 울다, 첫 닭이 울다, 배꼽이 웃다,  
소가 웃다, 병신이 육갑하다, 양귀비 외딴치다, 지나간 버스에 손 흔들다,  
소가 짓다, 달 보고 짓는 개

- (17) 선이 가늘다, 마음이 가다, 핏기가 가시다, 하늘이 갈라지다

명사구를 두 개 취하는 (14) 동사의 경우에는 어느 가설이 옳은지를 시험해 보기가 어렵다. 두 가설이 모두 하나의 명사구와 합성되기를 예측하며 그것은 이미 위에서 단순하게 명사구의 수를 세어 보았을 때 옳은 예측이었음이 입증

되었기 때문이다. 명사구를 세 개 취하는 (15)의 동사들의 경우에도 불포화원리의 예측은 맞지 않는다. (15a)의 10개의 동사를 조사한 결과 (18a)처럼 명사구를 한 개 취하는 관용어구가 27개, (18b)처럼 두 개 취하는 관용어구가 8개로 하나를 취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포화원리는 관용어구의 합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체로 하나의 명사구만을 합성하는 경향은 두드러진다.

- (18) a. 치마폭에 감싸주다, 양념으로 곁들이다, 한턱을 내다  
b. 뒷구멍으로 호박씨 까다, 얼굴에 첩판을 깔다, 입에 거품을 내다

복합어구 형성의 두 번째 가설은 문법기능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 가설이 옳다면 Marantz가 예측한 대로 목적어가 합성된 관용어구는 많이 발견되는 반면 주어가 합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야 한다. 이 가설은 우리말에서 쉽게 허물어지는데 (13c)처럼 동사가 주제 명사구 하나를 취하는 경우 그들은 주격표지가 붙은 주어로 대부분 합성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15a)처럼 세 개의 명사구를 취하는 동사들의 경우에도 하나의 명사구를 취하는 경향이 우리말에서 지배적이므로 (19)와 같이 목적어가 합성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

- (19) 손아귀에 넣다, 잠을 재우다, 가슴에 새기다, 저승에 보내다, 자로 재다

그러면 의미역의 영향을 받는다는 마지막 가설을 살펴보자. 이 가설이 옳다면 적어도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수동자/주제, 장소/출발점/도달점이 합성되는 예는 많이 발견되는 반면 행위자가 합성되는 예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우선 (13)의 경우 행위자보다 주제가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은 세어보지 않아도 분명하다. 행위자를 하나 취하는 동사로서 관용어구 형성에 참여하는 동사가 13개 밖에 되지 않고 그들로 이루어진 관용어구 중 (16)에 주어진 18개 이외에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주제를 취하는 동사는 매우 많고 그들 중 대부분이 주제 명사구와 합성된 형태로 관용어구를 이룬다. (14a)도 매우 재미 있는 결과를 보이는데 행위자와 또 다른 하나의 명사구(수동자, 장소, 도구 등)를 취하는 동사의 경우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처럼 행위자 하나만을 합성하는 예는 한 개도 나오지 않는다. 수동자가 합성된 예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행위자가 합성된 경우는 수동자나 장소와 함께 합성된 예가 (20)에 주어진 것처럼 11개에 그친다.

- (20) 길을 가는 사람, 눈물이 앞을 가리다, 거지 제 쪽박 깨기,  
몸이 말을 듣지 않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눈에 흙이 들어가다,  
손톱 밑에 흙이 들어가다, 눈을 뜬 장님, 꿀떡은 병어리,  
세 살 먹은 어린애, 발 탄 강아지

(15a)처럼 세 개의 명사구를 취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입증된 수의 제약 때문에 행위자가 나오는 예가 더 없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수동자가 합성되는 예는 계속 많이 발견되므로 적어도 행위자와 수동자/주제 간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위에서 관용어구 조어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세 가지 가설을 시험해 보았다. 문법기능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수는 명사구를 하나만 합성하는 경향이 지배적으로 드러난다. 의미역은 적어도 가장 극단적인 경우인 행위자와 수동자/주제 간의 차이는 뚜렷이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8)에 명시된 세분화된 의미역들 간의 차이도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겠다.

### 3.2. 의미역 위계와 관용어구

세분화된 의미역 위계를 논하기 위해 (13)~(15)의 분류((21)~(23)에 반복, 완전한 분류표는 부록 참조)를 다시 살펴보자.

- (21) a. 행위자 명사구를 하나 취하는 동사  
 걷다<sub>1</sub>, 놀다, 다가오다, 다니다, 떠나다<sub>a</sub>, 말하다<sub>a</sub>, 얼얼하다, 울다<sub>a</sub>, 웃다, 육갑하다
- b. 수혜자/수령자/경험자 명사구를 하나 취하는 동사  
 (없음)
- c. 주제 명사구를 하나 취하는 동사  
 가늘다, 가다<sub>1</sub>, 가다<sub>2</sub>, 가렵다, 가볍다, 가빠지다, 가시다, 간들거리다, 간지럽다, 갈리다
- (22) a. 행위자가 포함된 두 개의 명사구를 취하는 동사  
 가다<sub>3a</sub>, 가리다<sub>a</sub>, 가지다, 가하다, 간직하다, 갈다<sub>1</sub>, 갈다<sub>2</sub>, 감다<sub>1</sub>, 감다<sub>2</sub>, 감추다
- b. 수혜자/수령자/경험자를 포함한 두 개의 명사구를 취하는 동사  
 간직하다, 감수하다, 갖추다, 거두다, 쥐다, 굶주리다, 깨다<sub>1b</sub>, 꾸다<sub>2</sub>, 풀리다, 나누다
- c. 주제를 포함한 두 개의 명사구를 취하는 동사  
 가다<sub>3b</sub>, 가라앉다, 가리다<sub>b</sub>, 감추어지다, 거두다, 거슬리다, 거칠다, 거칠다<sub>b</sub>, 걸리다<sub>b</sub>, 깎이다<sub>a</sub>
- (23) a. 행위자가 포함된 세 개의 명사구를 취하는 동사  
 가라다, 감싸다, 걸들이다, 구워먹다, 까다<sub>b</sub>, 깔다<sub>b</sub>, 끼다<sub>3</sub>, 내다<sub>b</sub>, 내딛다<sub>b</sub>, 내세우다
- b. 행위자가 포함 안 된 세 개의 명사구를 취하는 동사  
 깎이다<sub>b</sub>, 느끼다, 듣다<sub>b</sub>, 보다<sub>b</sub>, 생각하다, 알다, 풀다

위의 분류를 할 때 첫째, 동음이의어는 (1, 2, 3) 식으로, 의미역을 제외한 의미자질은 같으나 취하는 명사구의 수나 의미역 종류가 다른 것은 (a, b, c) 식으로 표시했다.<sup>6</sup> 즉, (24)처럼 “걷다”는 의미가 다른 두 형태가 존재하고 “떠나다”는 모두 기본적으로 “이동하다”의 의미를 지니나 “떠나다a”는 행위자 하나를 취하고 “떠나다b”는 행위자와 장소를 취한다. 그리고 동사 분류 시 그 동사를 이용한 관용어구가 명사를 합성한 예가 전혀 없는 (25)와 같은 경우들은 분류표에서 제외시켰다.

- (24) a. 걷다1 : 팔을 걷고 나서다, 걷다2 : 내리막길을 걷다  
 b. 떠나다a : 차는 이미 떠나다, 떠나다b : 뇌리를 떠나지 않다
- (25) 굴다 : 달게 굴다,  
 날다 : 난다 긴다 하다, 난데없이, 날고 기다, 날고 뛰다  
 놀다 : 놀고 즐기고 하다

둘째, 위에서 말한 대로 본고에서는 명사구를 동사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논항에 제한시키지 않았다. 이런 방법론은 논항/비논항의 판단이 분명치 않은 경우를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나 다른 한편 표현 안 된 명사구의 경우 어떤 정도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가가 불분명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논항으로 분류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명사구를 고려하면서 의미적으로 매우 밀접한 것은 관용어구의 예에 나오지 않아도 숫자를 헤아렸고 또한 의미적으로 밀접하지 않아도 실제 예가 나오면 포함시켰다. 즉,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가능한 모든 관련 명사구의 수를 고려한 셈이므로 일반적인 논항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 예를 들어 (26)의 모든 동사는 행위자를 포함한 3개의 명사구를 취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는데 실제 그들이 쓰이는 양상은 매우 다르다. (26a)의 “날다”는 주제만 합성되기도 하고 장소만 합성되기도 하나 양 의미역이 모두 합성된 예도 나온다. 이에 비해 (26b)나 (26c)의 동사는 실제 예에서는 하나의 의미역만 발견되지만 동사의 의미 상 표현 안 된 주제나 장소도 요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3개의 명사구를 취한다고 보았다. 반면 (26d)의 동사들은 위의 경우들에 비교하면 동사와 명사구 간에 의미적인 연관성이 적은 것이 분명히 느껴지나 실제 관용어구의 예가 나오므로 수를 헤아렸다.<sup>7</sup>

<sup>6</sup> 관용어사전에도 동음이의어를 (1, 2, 3) 방식으로 구분해 놓았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재분류하기도 하고 이들 중 동음이의어가 아닌 것은 (a, b, c)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자료가 방대하여 일일이 각 범주의 용례를 보일 수는 없으나 큰 실수가 없었기를 바랄 뿐이다.

<sup>7</sup> 여기에 속하는 예들에는 Pustejovsky (1995, 63~64)의 정의에 따르면 default argument 나 shadow argument가 많은 듯하다. 전자는 “John built the house *out of bricks*”처럼 통사적으로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의미적 참여자를 가리키며, 후자는 “Mary buttered her toast (*with butter*)”처럼 동사의 의미속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어 “with an expensive

- (26) a. 놓다 : 바람을 놓다, 가슴에 놓다, 주머니에 손만 넣고 있다  
 b. 감싸다 : 치마폭에 감싸주다, 내세우다 : 간판으로 내세우다  
 c. 들이다 : 발을 들여 놓다, 디밀다 : 명함도 못 디밀다  
 d. 주므르다 : 한손아귀에 주므르다, 찌르다 : 손가락으로 하늘 찌르기,  
 듣다: 귓등으로 듣다, 쥐다 : 손에 쥐다

셋째, 장소/출발점/도달점은 “에, 에서, 로, 로부터” 등의 표지가 붙은 (27a)가 전형적인 예들이다. 이 중 출발점이 다른 두 가지 의미역에 비해 나오는 예가 적은 듯하나 구분하여 헤아리지는 않았다. 장소/출발점/도달점이 대격표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27b)의 예처럼 “에, 에서, 로, 로부터” 등으로 대체 가능할 경우는 포함시켰다. “가시밭길을 가다”와 같이 통로를 가리키는 표현도 넓게 장소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반면 (27c)의 예들은 형태적으로도 다른 장소 격표지로 대체 가능하지 않고 의미적으로도 본래의 정의대로 행위나 이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고 보아 장소/출발점/도달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들은 행위나 이동의 배경이라기보다는 행위자의 행위에 의해 실제로 영향을 입는, 즉 수동자의 의미에 더 가까운 듯하여 수동자로 그 수를 헤아렸다.

- (27) a. 가슴에 간직하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다, 하늘나라에 가다  
 b. 교문을 나서다, 교문을 나오다, 세상을 떠나다, 가시밭길을 가다,  
 c. 요단강을 건너가다, 자리를 굳히다, 앞을 내다보다

넷째, 행위자는 대체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같은 부사구와 공기(cooccurrence)할 수 있는가로 판단하였다(Y. Kim 1990). 이 때 의도성은 동사가 가리키는 행위가 기본적으로 의도적일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쓰인 각각의 관용어구에서 의도적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다. 즉, 잠재적(potential)인 의도성에 의해 판단하였는데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소위 비대격동사(unaccusative verbs)이다. “걷다, 눕다, 일어나다” 같은 동사들은 많은 언어에서 수동자를 주어로 취하는 비대격동사로 분류되지만 우리말에서는 (28a)처럼 “일부러”와 공기하여 의도적인 행위를 가리킬 수 있으므로 행위자를 취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것이 (28b)에서 알 수 있듯이 “걷다”가 모든 용례에서 의도적인 의미로 쓰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울다, 웃다”도 행위자를 취하는 동사로 분류하였는데 그것이 곧 (28c)나 (28d)의 모든 주어가 적극적인 행위자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은 어느 정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우리 신체의 일부분인 “손”은 일반적으로는 그 손이 속하는 사람의 의지가 작동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일종의 도구로 파악되나 “손이 울다”라는 관용어구에서는 마치 사람처럼

---

butter”처럼 특별한 수식이 없이는 통사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논항들을 가리킨다.

림 스스로 올 수 있는 주체로 표현되고 있는 듯하다. “배꼽이 웃다”에도 같은 설명이 적용되며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동사가 기본적으로 의도성을 표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본고의 논거이다.

- (28) a. 일부러 느릿느릿 걷다/자리에 눕다/벌떡 일어나다  
 b. 걷다 : 거북이 걸음, 내리막길을 걷다, 살얼음판을 걷다,  
 제자리 걸음을 하다  
 c. 울다 : 손이 울다, 암탉이 울다, 주먹이 울다, 첫 닭이 울다  
 d. 웃다 : 배꼽이 웃다, 소가 웃다

은유(metaphor)도 여기에 관련이 된다. (29)의 예들은 관용어구 표현 전체로는 경험자를 취하는 심리상태동사(psychological verbs)이나 본고의 관심거리는 동사의 의미이다. 동사 자체로는 “일부러” 등의 부사와 공기하여 의도적인 행위를 가리킬 수 있으므로 이들 동사도 행위자를 취하는 동사로 분류하였다.

- (29) 속을 끓이다, 애간장을 저미다, 속을 태우다

행위자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또 하나의 문제는 어휘수동태(Lexical Passives)이다. 이/히/리/기 접미사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들 동사 용례에서 “-에”의 형태로 실현되는 명사구의 합성이 가끔씩 발견되는데 이들이 행위자라면 Kiparsky의 주장에 강한 반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31)에서 보듯이 이들은 영어의 수동태나 우리말의 “지다” 수동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31a)처럼 대응되는 능동문이 가능한 동사도 있으나 (31b)나 (31c)처럼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K. Lee 1987). 본고에서는 이들이 수동태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의미적으로는 수동자와 행위자를 취하기보다 주제와 장소를 취한다고 보았다.

- (30) a. 가리다 : 그늘에 가리다, 베일에 가리다  
 b. 걸리다 : 귀에 걸리다, 그물에 걸리다, 낚시에 걸리다, 밧에 걸리다,  
 마음에 걸리다, 목에 걸리다, 눈에 걸리다, 암초에 걸리다  
 c. 맺히다 : 가슴에 맺히다, 골수에 맺히다
- (31) a. 그늘이 가리다, 베일이 가리다,  
 b. \*귀가 걸다, \*그물이 걸다, \*낚시가 걸다, \*밧이 걸다, \*마음이 걸다,  
 \*목이 걸다, \*눈이 걸다, \*암초가 걸다  
 c. \*가슴이 맺다, \*골수가 맺다

마지막으로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의미적으로 전체-부분 간의 관계를 가리키며 흔히 격중출구문(Multiple Case Construction)으로 실현되는 동사들이다. 우선 (32a)의 “조르다, 잡다” 등은 “허리띠를 조르다, 도둑을 잡다” 등 일반적인 문장에서 쓰이는 예를 보면 의미적 참여자가 명백히 둘이다. 따라서 대부

분의 이론들이 (32b)와 같은 문장들을 분석할 때 대격 표지된 두 개의 명사구 중 어느 명사구를 논항으로 보는가는 차이가 있지만 두 명사구 중에 하나는 논항으로 다른 하나는 부가어로 분석을 하고 있다(Y. Kim 1990). 본고에서도 이를 따라 이들 동사를 행위자와 수동자를 취하는 동사류로 분류하였다. (18b)는 이와 다른데 의미적 참여자가 셋인 것이 분명한 경우로 이들은 명사구를 세 개 취하는 동사로 분류하였다. 이는 (26d)에서 “한손아귀에” 등을 명사구로 해야 할 경우와는 다르다. “한손아귀에”는 일반적으로 논항으로 보지는 않으나 동사의 의미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이고 (32a)에서 실현 안 된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은 동사가 요구하는 의미적 참여자가 아니라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구가 요구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J.-M. Yoon 1997).<sup>8</sup>

(32) a. 목을 조르다, 덜미를 잡다

b. 그가 나를(의) 목을 조르다, 그 일이 나를(의) 덜미를 잡았다

이 구문의 어휘수동구문에 해당되는 구문에서는 (33)처럼 명사구에 주격 표지가 붙을 수도 있고 대격 표지가 붙을 수도 있다.

(33) a. 발목이 묶이다, 덜미가 잡히다, 코가 껴이다

b. 발목을 묶이다, 덜미를 잡히다, 코를 껴이다

(33b)는 위와 같은 논리에 따라 수혜자/수령자/경험자((34b)의 “그”)와 주제((34b)의 “발목”), 두 개의 명사구를 취하는 동사로 분류하고 이 중 주제만 합성된 것으로 보았다.<sup>9</sup> 이는 (30)의 어휘수동 예들처럼 이들도 영어의 수동태처럼 분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34b)에서 대격표지가 붙는 문장을 수동태로 분석한다면 주제인 “그”와 행위자인 “그 일”을 취하는 것으로 보아야겠으나 “그 일”은 행위자로 보기에 의미가 너무 약하고 관용어구에 실현되는 예도 전혀 없다. 또한 “발목”은 (35)처럼 “지다” 동사에 의해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논항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33a)와 같이 주격표지가 붙는 경우는 (36)과 같은 문장에서 나오는 예이다. 여기에서도 (32)의 논리를 따라 주제(“발목”) 하나를 취하는 동사로 분류하였는데 전체를 나타내는 명사구는 동사가 요구하는 의미적 참여자가 아니라 주제인 부분을 나타내는 명

<sup>8</sup> 이 설명은 대격중출구문(Multiple Accusative Case Construction)에서 두 관련 명사가 전체-부분 관계일 때만 적용된다. “박수를 보내다”처럼 수령자가 표현 안 되는 경우나 “살을 찌우다”처럼 피사동주(Causee)가 표현 안 되는 경우는 물론 세 개의 명사구를 취하는 동사로 분류된다.

<sup>9</sup> “그”를 수혜자/수령자/경험자가 아니고 주제로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동사들의 주어가 거의 일관되게 사람으로만 표현이 되므로 전자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어떤 분석법을 택하든 이들이 관용어구에 합성되는 경우는 전혀 없으므로 우리의 통계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사구에 의해 요구되는 성분이기 때문이다.<sup>10</sup>

- (34) a. 그 일이 그를 발목을 묶다  
       b. 그가 그 일로 발목이/을 묶었다
- (35) 그가 그 일로 발목이 묶여졌다.
- (36) 그가(의) 발목이 묶였다.

(36)과 유사하나 더 어려운 구문을 이끄는 동사들이 있다. (37)의 동사들은 (38a)와 같은 용법으로 쓰이는데, (36)과 (38b)를 비교해 보면 후자의 경우 “그”가 경험자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진다. 실제로 이 동사들은 경험자와 주제 두 개의 논항을 취하는 심리동사로 분석될 수 있는데 (39a)와 같은 문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라는 경험자에 “에게”같은 표지가 붙을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38b)에는 그런 분석을 똑같이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동사들의 경우 주제가 “속, 가슴, 뒤, 입맛, 얼굴” 등의 신체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에만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39b)처럼 “에게”는 가능하지 않고 주격표지만 가능해진다. 본고에서는 다시 (32)에 적용했던 논리를 따라 “그”를 “속”에 의해 요구되는 명사구로 보고 이들 동사를 (21c)에 주제 명사구 하나를 취하는 동사로 분류하였다.<sup>11</sup>

- (37) 느글거리다, 느끼하다, 답답하다, 멍기다, 뜨끔하다, 뜨듯하다, 마렵다, 메스껍다, 몽클하다, 미어지다, 벽차다, 부끄럽다, 선뜩하다, 섬뜩하다, 송연하다, 시큰거리다, 심심하다, 싫다, 쓸쓸하다, 아프다, 아찔하다, 울렁거리다, 유하다, 쩡하다, 철렁하다, 켕기다, 화끈거리다, 후련하다, 환하다
- (38) a. 속이 답답하다, 가슴이 뜨끔하다  
       b. 그가(의) 속이 답답하다
- (39) a. 그가(는, 에게) 그 일이 답답하다, 그가(는, 에게) 그 일이 뜨끔하다  
       b. 그가(는, \*에게) 속이 답답하다, 그가(는, \*에게) 가슴이 뜨끔하다

지금까지 설명한 원칙에 따라 (21)~(23)에 주어진 동사들이 나오는 관용어구에서 세분화된 의미역들이 합성되는 수를 헤아려 보았다. 의미역은 (7b)에 제시했던 의미역 위계((40)으로 반복) 상의 네가지 의미역에 주목하였고 다른

<sup>10</sup> 이런 설명은 (36)에서 “그가”가 아니라 “발목이”가 주어라는 분석을 지지하는 것이다 (J. Yoon 1987, Y. Kim 1990 등).

<sup>11</sup> 더 강한 논거가 제시되면 (37)의 동사들을 (22b)의 수혜자/수령자/경험자를 포함한 두 개의 명사구를 취하는 동사로 분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주석 (9)의 경우처럼 이 명사구가 합성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우리의 통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의미역들은 기타로 처리하였다. “기타”라는 항목에는 (40)에 포함되지 않는 의미역(도구, 자격 등)을 의미하는 명사구나 부사가 합성된 경우, 부정사구나 절과 함께 쓰였거나 동사 자체만으로 관용어구를 형성한 경우의 수들이 포함되었다. “기타”는 그 자체로 본고의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으나 어떤 특정한 의미역이 전체 관용어구에서 몇 %를 차지하는가를 보다 정확히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40) 행위자 < 수혜자/수령자/경험자 < 수동자/주제 < 장소/출발점/도달점

(21)~(23)의 각각의 경우를 의미역에 따라 재구성해 본 의미역 합성의 대략적인 통계는 다음과 같다.<sup>12</sup> 의미역의 명칭은 행위자, 수혜자, 주제, 장소로 대표를 삼았다.

(41) 행위자

	행위자	주제	장소	행+주	행+장	주+장	행+주+장	기타
a. (21a)	18 <sup>13</sup>							10
b. (22a)	0	1059	105	5 <sup>14</sup>	6 <sup>15</sup>			93
c. (23a)	0	214	45			30	0	24
	18	1273	150	5	6	30	0	127

(42) 주제

	주제	장소	주+장	기타
a. (21c)	764			40
b. (22c)	304	168	47	65
c. (23c)				
	1068	168	47	105

(43) 수혜자

	수혜자	주제	장소	수+주	주+장	기타
a. (21b)						
b. (22b)	0	194	9	5		19
c. (23b)	0	4	1		1	9
	0	198	10	5	1	28

<sup>12</sup> 자료 분석의 원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되면서 자료도 여러 번의 재분석을 거쳤기 때문에 통계에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으리라는 것을 필자 스스로 인정한다. 단, 오차가 본고의 주요 논의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기만을 희망한다.

<sup>13, 14, 15</sup> 13의 예는 (16)에, 14, 15의 예는 (20)에 주어져 있다.

(41)~(43)의 결과를 정리하면 (44)와 같다. 이 결과를 3.1에서 합성될 수 있는 명사구의 수를 셀 때 얻었던 결과와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3.1에서는 두 개의 명사구를 취하는 관용어구가 약 107개, 세 개를 취하는 예가 2개, 명사를 합성하지 않는 경우가 190개라고 주장하였는데 (44)의 표에는 두 개를 취하는 경우 94개, 기타 260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첫째, “주제+도구, 장소+자격” 등의 명사구를 합성한 15개의 예들이 (44)에서는 기타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강에 배 지나간 자국”은 세 개의 명사구를 취하는 관용어구이나 “행위자+장소+화용적 참여자”로 분석되므로 기타 항목에 포함시켰다. 둘째, “명사를 합성하지 않은 190개”와 (44)의 기타 항목은 실제 매우 다른 예들의 집단인데 전자에는 (25)와 같이 명사를 합성한 관용어구에는 전혀 쓰이지 않은 동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 후자에는 그런 동사들은 제외되었으나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의미역이 아닌 다른 명사구가 합성된 관용어구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의 차이가 난다.

(44) 행위자	수혜자	주제	장소	행+주	수+주	행+장
18	0	2539	328	5	5	6
주+장	행+주+장	기타	합계			
78	0	260	3239			

(44)의 결과에서 총 관용어구 중 주요 의미역 하나씩만을 합성한 경우는 행위자 0.5%, 수혜자 0%, 주제 78%, 장소 10% 정도로 드러난다. 주제에는 행위의 대상인 수동자와 이동이나 존재의 주체인 주제의 예가 섞여 있는데, 구분하여 헤아리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행위자와 함께 나오는 주제가 수동자라고 보면 두 의미역 간에 언어학적으로 의미있는 빈도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이들 의미역 중 두 가지 이상이 함께 합성된 경우, 또 이들 주요 의미역과 다른 의미역이 함께 합성되어 기타에 속해 있는 경우들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 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주제와 장소가 함께 합성된 78개를 제외한 다른 집단은 그 수가 매우 적으므로 논외로 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78개는 무시할 만한 수는 못 되나 별도의 집단으로 구분하거나 주제나 장소 어느 한 쪽, 또는 양 쪽에 포함시켜도 전체 논의의 방향에는 영향을 안 미칠 것이므로 4장에서는 각 의미역이 하나씩 합성된 경우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시키기로 하겠다.

#### 4. 의미역 위계의 재고찰

(44)의 결과는 영어의 관용어구에 근거하여 제안되었던 (40)의 의미역 위계를 지지하지 않는다. (44)에서 관찰되는 것은 10%의 차이를 인정한다면 (45a)와 같은 세 단계의 위계, 혹은 78%라는 분포의 차이를 존중한다면 (45b)와 같은 두 단계의 위계라고 할 수 있다. 장소/출발점/도달점은 그 정의 상 명사구를

하나 취하는 동사에 전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의 수가 적을 수 밖에 없으나 명사구를 두 개 이상 취하는 동사들만 보아도 주제와 장소의 비율이 5:1 (1775개:328개)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 (45) a. 행위자, 수혜자/수령자/경험자 < 장소/출발점/도달점 < 수동자/주제  
 b. 비수동자/주제 < 수동자/주제

그렇다면 우리가 본고의 주제로 삼아 (8)((46)으로 반복)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인접한 의미역들 간의 위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우선 (46a)의 위계는 한국어 관용어구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46b)의 위계는 관찰이 되나 Kiparsky의 주장처럼 인접한 의미역으로서가 아니라 양 극단에 있는 두 의미역으로서 관찰이 된다. (46c)의 위계는 논쟁이론의 쟁점 중의 하나인데 한국어 자료는 이와 반대의 위계, 즉 장소/출발점/도달점이 수동자/주제보다 상위에 있는 위계를 지지한다.

- (46) a. 행위자 < 수혜자/수령자/경험자  
 b. 수혜자/수령자/경험자 < 수동자/주제  
 c. 수동자/주제 < 장소/출발점/도달점

여기에서는 한국어 자료가 수동자/주제와 비수동자/주제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데 주목하여 이 양 집단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45b)의 위계가 논항구조 이론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논하기로 한다. 대부분의 논항구조 이론은 수동자와 주제를 논의없이 위계 상 같은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제시하지만 실제 이들을 의미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수동자는 다른 행위자가 존재할 때 그 행위자가 행하는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대상이며, 주제는 스스로 어떤 위치에 존재하거나 어떤 속성을 지니거나 위치를 이동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주제는 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면에서 수동자보다는 오히려 행위자에 가까우며 그것이 본고 ((28))에서 비대격동사 중에서도 의도성을 떨 수 있는 동사는 행위자를 취하는 것으로 분류한 이유이다. Dowty (1991, 572)는 2장에서 소개된 이론들과 달리 의미역을 (47)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그의 정의에 따라도 주제는 이동성에 근거하여 (47a)의 원형행위자(Proto-Agent), 수동자는 (47b)의 원형 수동자(Proto-Patient)로 분류될 것이다.<sup>16</sup>

- (47) a. 원형 행위자의 자질  
 의도성(volitional involvement), 지각력(sentience),

<sup>16</sup> 원형수동자의 상태변화는 “John moved a rock”, 정지성은 “The bullet entered the target” 등을 가리키므로 주제가 아니라 수동자나 장소와 관련된 자질이다.

사역성(causing an event), 이동성(movement),  
존재의 독립성(independent existence)

b. 원형 수동자의 자질

상태변화(undergoing change of state), 점진성 주제(incremental theme),  
피사역성(causally affected), 정지성(stationary),  
존재의 비독립성(does not exist independently of the event)

그렇다면 주제와 수동자를 하나로 묶어주면서 다른 모든 의미역과 큰 대비를 이루게 하는 자질은 무엇인가? 본고는 그 대답을 Dowty의 점진성 주제(incremental theme)란 개념에서 찾고자 한다(Dowty 1991, 567). 점진성 주제란 주제의 지시체가 겪는 변화와 사건의 변화가 준동형(homomorphism)을 이루는 주제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mow the lawn”이라는 동사구를 생각해 보면 잔디를 깎는 사건이 얼마나 진행되었는가는 잔디밭을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잔디밭에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사건도 시작되지 않은 것이며 잔디밭이 1/2 깎였으면 사건도 1/2, 2/3 깎였으면 사건의 2/3가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잔디밭 전체가 깨끗하게 깎였을 때 사건도 완료되는 것이다. 이렇게 동사가 가리키는 사건의 변화가 그 동사가 취하는 명사구의 지시체의 변화로 나타날 때 그 명사구를 점진성 주제라 한다. Verkuyl (1972)로부터 비롯된 이 상적 개념은 Grimshaw (1990)의 상적 차원, Tenny (1987)의 “영향입음(affectedness)” 개념 등으로도 나타난다.

우리의 수동자는 대체로 점진성 주제에 해당된다. 이는 긴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위의 예에서도 쉽게 이해되듯이 완성동사(accomplishment verbs)와 성취동사(achievement verbs)가 취하는 수동자 명사구가 모두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전통적으로 행위자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입는 대상이라는 정의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에 속하는 수동자들을 포함할 수 있다. 즉, 전자는 (48a)처럼 분명한 상태변화를 겪은 경우만 포함할 수 있는데 비해 후자는 (48b)에서처럼 그 자체가 내부 상태의 변화를 겪지 않는 수동자들도 사건의 진행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48a)의 예들과 같이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48) a. build a house, write a letter, eat a sandwich

b. read a book, copy a file, memorize a poem

(49a)와 같은 행위동사(action verbs)의 목적어는 행위동사가 사건의 끝을 명시하지는 않으나 (49b)처럼 기동상(inceptive aspect) 즉, 정지해 있던 상태에서 움직이는 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점진성 주제로 이해될 수 있다(Tenny 1987, 102; 홍기선 1994).

(49) a. push a cart

b. This cart pushes easily.

본고에서 계속 주제라 지칭하였던 명사구도 상태의 주체이거나 점진성 주제를 가리킨다. (21c)와 (22c)에 속하는 동사들은 크게 두 부류로 상태동사이거나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취하는 주제 명사구는 상태의 주체이거나 이동하는 주체인데 이 중 후자가 바로 점진성 주제의 전형적인 예이다. 즉, 이동의 주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가 이동하는 사건이 얼마나 진행되었는가를 표시하며 이동의 주체가 위치를 완전히 옮겼을 때 그 사건도 종결된다. 또한 이동의 끝점 뿐 아니라 (49)처럼 정지해 있던 상태에서 이동하는 상태로 사건도 포함하면 이동동사가 취하는 주제들은 모두 점진성 주제란 범주에 속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한국어 관용어구는 대부분의 경우 수동자/주제 의미역을 합성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상태의 주체이거나 점진성 주제라는 것이다. 이들이 왜 동사와 가장 잘 합성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미적으로 동사와 가장 밀접한 요소라거나 통사적으로 동사와 제일 가까운 내부논항이라던가 하는 여러 가지 가설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45b)와 같이 두 가지 의미역 사이의 순서만 정해주는 위계가 자료 분석의 관점에서는 지지를 받으나 다양한 언어현상을 설명하는데 충분한가 하는 것이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통사구조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2장에서 살펴본 세분화된 위계가 요구된다면 관용어구 같은 독립적 근거 없이도 그런 위계를 계속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45b)와 같은 위계도 충분한 설명력이 있다면 의미와 통사와의 관계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sup>17</sup>

## 〈부 록〉

### 관용어구에 나오는 동사 분류표

- (1) a. 행위자 명사구를 하나 취하는 동사  
 걷다1, 놀다, 다가오다, 다니다, 떠나다a, 말하다a, 얼얼하다, 울다a, 웃다, 육갑하다, 외딴치다, 지나가다, 짓다
- b. 수혜자/수령자/경험자 명사구를 하나 취하는 동사  
 (없음)
- c. 주제 명사구를 하나 취하는 동사  
 가늘다, 가다1, 가다2, 가렵다, 가볍다, 가빠지다, 가시다, 간들거리다,

<sup>17</sup> 수동자와 주제를 Dowty의 원형 수동자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주제는 점진성 주제이기도 하나 원형 행위자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점진성 주제는 원형 수동자에 국한되는 자질이 아닌 듯하나 여기에서는 논의하지 않겠다.

간지럽다, 갈리다, 갈라지다, 감돌다, 강하다, 개운하다,  
 거칠다a, 걸다1, 걸리다a, 겹다, 교차하다, 구리다, 굳다, 구르다1, 굶다,  
 굽다, 궁급하다, 근지럽다, 기울다, 길다, 깊다, 감감하다, 깨끗하다,  
 깨다1a, 깨지다, 꺼지다, 꺾이다, 꼬부라지다, 풀리다, 깨끗하다, 꿰이다a,  
 꿰기다, 꿰어지다, 꿰다, 나가다a, 나쁘다, 납작해지다, 낮다, 내려가다,  
 내려왔다, 내리다a, 내키다, 넓다, 넘어가다a, 노랗다, 녹다a, 녹슬다,  
 높다, 누그러지다, 느긋거리다, 느끼하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다르다,  
 달다1, 달아오르다, 닳다, 답답하다, 더럽다, 멀쩡하다, 둔다, 둔치다,  
 돌다a, 동하다, 두껍다, 두둑하다, 뒤집히다, 뒤틀리다, 드높다, 드러나다,  
 드세다, 든든하다, 들뜨다, 들여다보이다, 따갑다, 따뜻하다, 딸리다,  
 떨리다, 뚫다, 땡기다, 뚱리다, 뛰다a, 뜨다a, 뜨겁다, 뜨끔하다, 뜨듯하다,  
 뜨이다, 멍하다, 마렵다, 막막하다, 막히다a, 많다, 맑다, 맞다1, 맵다,  
 먹다1, 멀다1, 멀다2, 멀쩡하다, 메다1, 메스껍다, 무겁다, 무너지다,  
 무르다, 무섭다, 묶이다a, 몽글하다, 미어지다, 바뀌다, 바래다, 바르다1,  
 반지르르하다, 반짝이다, 밝다, 배기다, 벽차다, 번지르르하다, 번쩍하다,  
 벌어지다, 병병하다, 변하다, 복잡하다, 부끄럽다, 부러지다, 부르다1,  
 부시다, 부풀다, 불다a, 불룩하다, 붉어지다, 붓다1, 비다, 비치다, 빛나다,  
 빠르다, 빨개지다, 뻥하다, 뻥치다a, 빨갳다, 뽀뽀하다, 뽀뽀하다, 뽀뽀하다,  
 빠다, 빼돌어지다, 사납다, 살다1a, 삼천리이다, 상하다, 새다1, 새롭다,  
 서늘하다, 서다a, 서투르다, 선뜩하다, 섬뜩하다, 성하다, 세다1, 세다2,  
 솔깃하다, 송연하다, 수그러지다, 숙여지다, 시다, 시원하다, 시커멓다,  
 시큰거리다, 식다, 실하다, 심심하다, 싶다, 싸다1, 씹다, 쏟아지다,  
 쏠리다, 쓰다1, 쓰리다, 쓰이다, 쓸쓸하다, 아찔하다, 아프다, 야무지다,  
 약하다, 얇다, 알다, 어긋나다, 어둡다, 어지럽다, 없다a, 엇갈리다,  
 여리다, 여물다, 열리다, 오그라들다, 오싹하다, 우뚝하다, 울렁거리다,  
 움츠러들다, 유하다, 으쓱거리다a, 일다, 있다a, 자다a, 자라다, 작다,  
 작용하다, 잘리다, 잡히다a, 재다1, 저미다a, 절벽이다, 젓다, 좁다, 좋다,  
 죄이다, 죽다, 지나가다a, 질기다, 질리다a, 질다, 짧다, 찌다1, 쫓뻗하다,  
 찢리다, 찜하다, 찢어지다a, 차갑다, 차다1a, 처지다, 철렁하다, 치다1,  
 감감하다, 커지다, 켜기다, 켜지다, 크다, 타다1, 터지다, 통하다, 튀다,  
 트다a, 트이다, 틀리다, 파랗다, 파이다, 팔리다a, 팔자이다, 푸르다,  
 풀리다, 풀어지다, 풍기다a, 피다a, 하얘지다, 험하다, 험프다,  
 화끈거리다, 후련하다, 흰하다, 휘다, 휘어지다, 흐릿하다, 흔들리다

(2) a. 행위자가 포함된 두 개의 명사구를 취하는 동사

가다3a, 가리다a, 가지다, 가하다, 간직하다, 갈다1, 갈다2, 감다1, 감다2,  
 감추다, 갸우뚱거리다, 건너다, 건드리다, 건지다, 건다2, 걸다2,  
 걸치다, 겨누다, 겨루다, 견주다, 고치다, 구경하다, 구기다, 구르다2,

굳히다, 굴리다, 굽히다, 굽다, 굶다, 기다, 기르다, 기울이다, 까다a,  
 까딱하다, 까발리다, 깎다, 깔다a, 감박이다, 감작하다, 깨다2, 깨뜨리다,  
 깨물다, 꺾다, 꼬다, 꼬다, 꺾다, 꺾다, 꾸다1, 꿰다, 꿰뚫거리다, 꿰다, 끄다,  
 끄덕이다, 꿰다, 꿰이다, 끼다1, 끼었다, 끼우다, 나가다b, 나란히 하다,  
 나불대다, 나서다, 나아가다, 나왔다, 나오다a, 낚다, 날리다, 남기다,  
 남발하다, 낫추다, 내걸다, 내놓다, 내다a, 내다보다, 내두르다, 내던다a,  
 내리다b, 내밀다, 내붙이다, 내젓다, 넘기다, 넘다, 넘보다, 노리다,  
 녹이다, 놀리다, 높이다, 놓다, 누르다, 눅다, 늘이다, 늦추다, 다가서다,  
 다물다, 다지다, 다투다, 닦다, 닫다, 당기다a, 덜다, 도려내다, 돌구다,  
 돌우다, 돌리다, 두드리다, 두들기다, 뒤지다, 뒤집다, 뒤흔들다,  
 드러내다, 드리다, 든다a, 들다1a, 들먹이다, 들어가다, 들어서다,  
 들여다보다, 들이다1, 등지다, 디디다, 따다, 따르다, 때리다, 때우다,  
 떠나다b, 떠밀다, 떠보다, 떨구다, 떨다, 떼다, 똥칠하다, 똥다, 똥다b,  
 뜨다b, 뜨다c, 뜯다, 띄우다, 마련하다, 마시다, 막다, 만나다, 만들다a,  
 말다a, 말리다, 말하다b, 맞대다, 맞잡다, 맞추다, 매기다, 매다, 매달다,  
 맷다, 머금다, 머물다, 먹다2a, 먹이다a, 멈추다, 매다2, 메우다, 모으다,  
 몰수하다, 못하다, 무릅쓰다, 뚫다, 물다, 물리나다, 물리서다, 밀다,  
 바꾸다, 바치다, 반짝거리다, 받들다, 밝히다, 밝다, 버리다, 번뜩이다,  
 번쩍이다, 벌다, 벌리다, 벌이다, 벗다, 벗어나다, 베다1, 베다2a,  
 보전하다, 봉하다, 부라리다, 부르다2, 부릅뜨다, 부리다, 불다b, 불리다,  
 불사르다, 불태우다, 비비다, 비우다, 비틀다, 빌리다, 빠뜨리다, 빨다,  
 빼다, 빼먹다, 뺨치다b, 뺨다, 뺨긋하다, 뺨다, 뺨다, 빼죽이다, 사다,  
 사르다, 사리다, 살다1b, 살다2, 삼키다, 상우다, 서다b, 설치하다, 세다3,  
 세우다a, 수그리다, 수정하다, 숙이다, 숨다, 숨기다, 식히다, 신다, 실다,  
 싸다2, 쌓다, 썰다, 쏘다, 쓰다2, 쓰다3, 쓰다4a, 쓰다듬다, 쓸다, 씻다,  
 악물다, 앓다, 앞서다, 앞세우다, 에다, 여미다, 열다, 올리다a, 옮기다,  
 우리다, 울다b, 울리다, 움츠리다, 유지하다, 으쓱거리다b, 이다,  
 이탈하다, 일으키다, 자르다, 잡다, 장식하다, 재다2a, 저미다b, 적시다,  
 접어들다, 젖다, 조르다, 조아리다, 조이다, 조절하다, 졸라매다, 졸이다,  
 좁히다, 죄다, 죽이다, 지내다, 지다1, 지르다, 지키다, 집다, 짓다1, 짚다,  
 짜내다, 짜다1, 짜다2, 짜다2, 쫓다, 찌뿌리다, 찌다, 찢다, 찢다, 차다2,  
 차리다, 찻다, 챙기다, 체조하다, 쳐다보다, 쳐들다, 추다, 추리다, 축내다,  
 치다2, 치다3, 치다4, 치다5a, 치우다, 캐다, 켜다a, 치켜뜨다, 키우다,  
 타다2, 타다3, 터놓다, 털다, 태우다1, 튀기다a, 트다b, 틀다, 퇴우다,  
 파다, 팔다, 퍼붓다, 퍼다, 풀다, 풀칠하다, 피다b, 피우다, 피하다,  
 하직하다, 함치다, 허락하다, 허물다, 휘날리다, 휘두르다, 흐리다,  
 흔들다, 흘기다, 흘리다a, 흘쩍거리다

b. 수혜자/수령자/경험자를 포함한 두 개의 명사구를 취하는 동사



간직하다, 감수하다, 갖추다, 거두다, 겪다, 굶주리다, 깨다1b, 꾸다2, 풀리다, 꿰이다b, 나누다, 놓치다, 놀리다, 늦다, 다시다, 다치다, 더럽히다, 듣다a, 듣다2, 막막하다, 맞다2, 말다, 모르다, 모자라다, 묶이다b, 받다, 보다a, 부족하다, 불히다, 상실하다, 쉬다, 싸다3, 썩이다, 썩히다, 씌다, 쑤시다, 아끼다, 안다, 앓다, 얻다, 의심하다, 잃다, 자다b, 잡히다b, 저리다, 적다, 주리다, 치르다, 토하다

c. 주제를 포함한 두 개의 명사구를 취하는 동사

가다3b, 가라앉다, 가리다b, 감추어지다, 거두다, 거슬리다, 거치다, 거칠다b, 걸리다b, 깎이다a, 깔리다, 뽑히다, 꿰이다b, 끝다, 끝리다, 끼다2, 끼치다, 나다, 나오다b, 나자빠지다, 나타나다, 나타내다, 남다, 넘어가다b, 녹다b, 놀아나다, 닥치다, 달리다, 당기다b, 닿다, 돌다b, 되다, 드리우다, 들다3, 들리다1, 들리다2, 들어오다, 떠오르다, 떨어지다, 띄다, 마르다, 막히다b, 맞다3, 맴돌다, 맏히다, 먹다3, 먹히다, 물리다, 묻다, 묻히다1, 미치다, 밀리다, 박이다, 박히다, 발리다, 발하다, 밝히다, 배다, 배이다, 보이다a, 부닥치다, 부딪치다, 부상하다, 붙다, 빠지다, 빨나다, 사라지다, 사무치다, 삼삼하다, 새다2, 생기다, 선하다, 설다, 솟다, 스미다, 스치다, 슬다, 싸이다, 씌어있다, 씌우다a, 아니다, 아른거리다, 엷매이다, 엷다b, 오다, 오르내리다, 오르다, 의하다, 이루다, 익다, 잇다, 잇다b, 자리잡다, 잠기다, 쟁쟁하다, 지나다, 지다2, 진하다, 짙히다, 짙히다, 찢어지다b, 차다1b, 차이다, 치닫다, 치밀다, 파묻히다, 팔리다b, 풍기다b, 피다c, 휘말리다, 휩싸이다, 흐르다

(3) a. 행위자가 포함된 세 개의 명사구를 취하는 동사

가라다, 감싸다, 결들이다, 구워먹다, 까다b, 깔다b, 끼다3, 내다b, 내딛다b, 내세우다, 넣다, 달다2, 담다, 대다, 던지다, 두다, 듣다b, 들다1b, 들이다1, 들이다2, 디밀다, 만들다b, 말다b, 말기다, 먹다2b, 먹이다b, 몰다, 묻히다2, 물려주다, 물리다, 바르다2, 박다, 배우다, 빨다, 벗기다, 베다2b, 보이다b, 보내다, 붙어넣다, 붓다2, 붙이다, 뿌리다, 삼다, 새기다, 섞다, 세우다b, 쑤다, 쓰다4b, 셋기다, 씌우다b, 안기다, 엷다, 엷히다, 엷다, 올리다b, 읽다, 재다2b, 재우다, 제치다, 주다, 주르르다, 쥐다, 지나가다b, 지지다, 질리다b, 짙어지다, 짓다2, 찢르다, 찢우다, 채우다, 치다5b, 치다6, 치다7, 칠하다, 켜다b, 태우다2, 튀기다b, 환원하다, 흘리다b

b. 행위자가 포함 안 된 세 개의 명사구를 취하는 동사

깎이다b, 느끼다, 듣다b, 보다b, 생각하다, 알다, 풀다

## 참 고 문 헌

- 박영준, 최경봉 편저 (1996) 관용어사전.
- 홍기선 (1992) '연결이론과 한국어 연구,' 주시경학보 10, 3~32.
- \_\_\_\_\_ (1994) '한국어 대격의 의미,' 언어 19, 287~311.
- Bresnan, J. (근간) *Lexical Functional Grammar*.
- \_\_\_\_\_ and J. Kanerva (1989) 'Locative Inversion in Chicheŵa: a Case Study of Factorization in Grammar,' *Linguistic Inquiry* 20, 1~50.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Dowty, D. (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3, 547~619.
- Fillmore, C. (1968) 'The Case for Case,'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eds. by E. Bach and R. Harms, 1~88,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Givón, T. (1984)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Benjamins, Amsterdam.
- Goldberg, A. (1995) *Constructio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rimshaw, J. (1990)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The MIT Press.
- Gruber, J. (1976) *Lexical Structures in Syntax and Semantics*, New York: American Elsevier.
- Hale, K. (1983) 'Walpiri and the Grammar of Non-configurational Language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 5~48.
- Hellan, L. (1988) *Anaphora in Norwegian and the Theory of Grammar*, Dordrecht: Foris.
- Jackendoff, R. (1990) *Semantic Structures*, Cambridge: The MIT Press.
- Kim, Y. (1990) *The Syntax and Semantics of Korean Case*,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Kiparsky, P. (1987) 'Morphology and Grammatical Relations,' ms. Stanford University.
- Lakoff, G. (1968) 'Instrumental Adverbs and the Concept of Deep Structure,' *Foundations of Language* 4, 4~29.
- Lee, K. (1987) 'The Meaning of the Two Passive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23-2, 185~202.
- Marantz, A. (1984) *On the Nature of Grammatical Relations*, Cambridge: The MIT Press.
- Pustejovsky, J. (1995) *The Generative Lexicon*, Cambridge: The MIT Press.
- Roeper, T. and D. Siegel (1978), 'A Lexical Transformation for Verbal Compounds,' *Linguistic Inquiry* 9, 199~260.
- Tenny, C. (1987) *Grammaticalizing Aspect and Affectedness*, doctoral

dissertation, MIT.

Van Valin, R. (1992) 'Incorporation in Universal Grammar,' *Journal of Linguistics* 28, 199~220.

Verkuyl, H. (1972) *On the Compositional Nature of the Aspects*, Dordrecht: Kluwer.

Yoon, J. H.-S. (1987) 'Some Queries concerning the Syntax of Multiple Subject Constructions in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2, eds. by S. Kuno et al., Seoul: Hanshin.

Yoon, J.-M. (1997) 'The Argument Structure of Relational Nouns and Inalienable Possessor Construction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33, 231~264.

## ABSTRACT

# Idiomatic Expressions in Korean and Argument Structure

Ki-Sun Hong

This paper deals with idiomatic expressions in Korean within the framework of Argument Structure Theory. The theory attempts to figure out what kind of semantic information is relevant to determining the formal characteristic of argument structure. Various studies propose the hierarchy of fine-grained thematic roles as a crucial determining factor, and some of them claim that English idioms provide supporting evidence. In this paper, I analyze the meaning of Korean idioms in terms of thematic roles to see whether it is affected by the hierarchical order among them. I will show that Korean idioms only support the binary distinction between Patient/Theme and all the other roles, unlike the previous claims based on English data. Basing myself on this empirical evidence, I will suggest that aspectual information may be more relevant to the argument structure of Korean idioms rather than the hierarchy of thematic roles.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e-mail: kshong@plaza.snu.ac.kr